

# 글자 배달부 코뿔뿔 쿵!

☁️ 〈한 줄로 정리하기!〉

책의 내용을 떠올려 보고 아래의 칸을 채워 보세요.



검은빵 글 | 김대호 그림 | 책딱지 펴냄

주요 사건

어떤 일이 일어났나요?

등장인물

누가 나오나요?

느낀 점

무엇을 느꼈나요?

글자 배달부  
코뿔뿔 쿵!

상상, 짐작

어떤 이야기가 이어질까요?



주인공 코뿔취 쿵은 잇다숲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?

.....

.....

코뿔취 쿵은 왜 글자 배달부를 새로 뽑기로 마음먹었나요?

.....

.....

글자 배달부가 된 우당탕과 단단의 첫 배달을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. 이야기의 내용을 떠올리며 표를 완성해 보세요.

| 글자 배달부 | 글자 보낸 이 | 글자 받는 이 | 집 위치 | 배달에 쓴 도구 |
|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|----------|
| 우당탕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|          |
| 단단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|          |

글자 상자들을 망가뜨린 범인은 누구였나요? 그리고 망가뜨린 이유는 무엇이었나요?

.....

.....

큰 잘못을 저지른 우당탕은 어떻게 되었나요?

.....

.....



- 말아서 해야 할 임무나 의무를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을 ‘책임감’이라고 합니다.  
이야기를 떠올리며 코뿔취 쿵이 책임감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되는 장면을 하나 꼽아 보세요.

.....

.....

- 아래는 이야기 속에서 나온 단어입니다. 이 단어들을 단서로 잇다숲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두 문장으로 간략히 써 보세요.

|       |    |      |    |       |
|-------|----|------|----|-------|
| 글자 배달 | 엉망 | 뒤죽박죽 | 범인 | 검은 모자 |
|-------|----|------|----|-------|

.....

.....

- 글자 배달 사무소에 불이 났을 때 잇다숲의 모든 이웃들이 발 벗고 나선 덕분에 무사히 불을 끌 수 있었습니다. 만약 이웃들이 나서지 않았다면 이야기는 어떻게 달라졌을지 적어 보세요.

.....

.....

- 여러분도 글자를 보낼 수 있다면, 누구에게 어떤 글자를 보내고 싶은가요? 또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?

.....

.....

- 이야기의 마지막에 한 여자아이가 글자 배달 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. 그 아이는 왜 글자 배달 사무소에 왔을까요? 코뿔취 쿵과 배달부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지 상상하여 적어 보세요.

.....

.....

실력이 쑥쑥 **날말 퀴즈**



다음은 <글자 배달부 코뿔쥬 쿵!>에 나오는 낱말입니다.

 다음 낱말에 알맞은 뜻을풀이를 선으로 이어 보세요.

도도록한 7쪽 ●

(기본형: 도도룩하다)

자음 9쪽 ●

모음 79쪽 ●

움짤했어 32쪽 ●

(기본형: 움짤하다)

쓸모없는 35쪽 ●

(기본형: 쓸모없다)

요란 44쪽 ●

능장 55쪽 ●

시끄럽고 떠들썩함.

**예** “떨며 달리면 안 돼. 상자가 흔들리지 않게 늘 조심.”

쓸 만한 가치가 없다.

**예** “아무나? 흑흑. 너도 날  쓰레기라고 생각하지?”

깜짝 놀라 갑자기 몸을 움츠러들다.

**예** 단단의 말에 코뿔쥐 쿵은

가운데가 조금 솟아서 볼록하다.

**예** 잇다쑤 한가운데  언덕이 있어.

느릿느릿 꾸물거리는 태도.

**예** 시간이 꽤 흘렀어. 더  부리면 안 될 것 같아.

목, 입, 혀 따위의 발음 기관에 의해 구강 통로가 좁아지거나 완전히 막히는 따위의 장애를 받으며 나는 소리.

**예** 기다란 기계 팔이 [ ] 과 모음을 번갈아 집어 들었어.

성대의 진동을 받은 소리가 목, 입, 코를 거쳐 나오면서, 그 통로가 좁아지거나 완전히 막히거나 하는 따위의 장애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.

**예** “쓰 ㅏ ㄱㅓ ㅅ는 자음과 [ ] 을 흡어 넣은 것 같아.”

 빈칸에 어울리는 낱말을 [보기]에서 찾아 써넣으세요.

[보기]

우왕좌왕

종종 거음

## 탄내

## 어렵פות이

증거

14쪽

32쪽

63쪽

56쪽

70쪽

[1] 주위를 둘러보던 단단은 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검은 형체를 보았어.

[2] 을 치는데도 느리고 불안했어. 결국 쿵 넘어져 뒹굴고 말았지.

[3]  들을 모아 보니 점점 범인이 드러났어. 누군가 슬금슬금 문 쪽으로 물러나고 있었지.

[4] 두터지는 당황해서 [redacted] 했어. 코팃쥬 쿵도 빠져나가긴 늦었어.

[5] 사무소 문을 열자마자 [redacted]가 났어. 사무소 바닥에 불길이 번지고 있었지.

